



# 시애틀 성 김대건 안드레아 성당 주보

11700 1st Ave. N.E. Seattle, WA 98125 | 사무실 : 206-362-2278 | 연례회 : 206-334-7050  
www.standrewkim.us | Email: standrewkim.us@gmail.com | 발행인 : 김다울 클레멘스  
주임신부: 김다울 클레멘스 | 보좌신부: 박윤기 F. 하비에르 | 이 크리스토폴 수녀 | 박 하비에르 수녀



부활의 저녁, 길 위의 두 제자  
무너진 희망을 붙들고 엠마오로 향하던 발걸음

곁에 다가오신 분을 알아보지 못한 채  
말씀으로 타오르는 신비 속에 머물렀네.

성경을 풀어주시던 그 음성은  
오늘 우리의 전례 안에서도 여전히 울리고

빵을 떼어 나누시던 그 손길은  
지금 이 미사 안에서 다시 펼쳐지며

닫혔던 눈이 열리고, 어둠이 걷히듯  
성체 안에서 주님을 알아보는 은총!

길은 끝나지 않고, 우리의 새로운 엠마오...  
미사 안에서 주님을 만난다.

## ACA(Annual Catholic Appeal) 2025

ACA는 시애틀 교구장 대주교님의 뜻에 따라 교구에 직접 내는 봉헌금으로 교무금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모든 신자들이 참여해야 합니다.

● 교구에서 각 가정으로 우편으로 발송한 인쇄된 원본 ACA 봉투를 사용하십시오.

(기부자의 이름, 기증자의 ACA ID 번호, 주소가 미리 인쇄되어 있음)

● 현금보다는 수표(Check) 또는 신용카드(Credit Card)로 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리 인쇄된 원본 봉투를 분실하여 일반 ACA 봉투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나 기부방법을 봉투에 작성할 때, 온라인으로 기부 하시려 할 때 사무실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대교구에서 발행할 연말 세금 정산 서한(Tax Report)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ACA 봉투에 모든 정보를 작성한 후 교구로 직접 우편으로 보내는 것이 신속합니다.

04/01/2026 기준  
본당 목표 금액 - \$ 61,028  
현재 기부 금액 - \$ 56,070  
현재 참가 인원 - 109명



## 본당 복음화 일치를 위한 기도

매일 저녁 9시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을 바치고

- + 교회의 어머니이신 복되신 성모 마리아님
- 시애틀 대교구와 저희 본당을 위하여 빌어 주소서.
- + 성 김대건 안드레아와 한국의 모든 순교 성인들이여
- 시애틀 대교구와 저희 본당을 위하여 빌어 주소서.

성가 안내    입당 성가: 131    예물 준비 성가: 219, 220    성체 성가: 181, 161    파견 성가: 132

부활 제2주일 (4/12)	토요 저녁(7:00)	주일 아침(8:00)	교중(10:00)	청소년(11:30)	청년(5:30)	미사 참례자 합계
미사 참례자	54명	71명	200명	148명	34명	507명



# 성 알폰소 마리아 데 리구오리



“이 가난한 시골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성사를 집행하고 하느님의 말씀을 전해줄 사제를 만날 수 없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이들은 신앙적으로 돌보아 주는 사람이 없어 신앙의 신비에 대해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그냥 죽어 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성 알폰소 마리아 데 리구오리(1696~1787)는 이탈리아 나폴리의 귀족 가문에서 태어나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빛에 둘러싸여 “세속을 버리고 오로지 나만을 위해서 살아라.”라는 음성을 두 번이나 들은 후 성직자의 길로 들어선다. 그 후 그는 새로운 부르심을 듣게 되는데, 바로 경제적으로 빈곤한 처지에 있으면서 글을 읽을 줄도 쓸 줄도 모르고 교리 지식도 무지하며 종교적으로 내버려진 가난한 이들을 위한 삶이었다. 당시 그가 살고 있던 이탈리아 나폴리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인 만큼 화려함과 부를 지니고 있었고, 그 같은 대도시의 성격이 그렇듯 3만여 명에 이르는 도시 빈민이 번창한 도시의 이면에 자리 잡고 있었다. 알폰소는 그러한 시대적 곤궁에 해답을 찾기 위해 개인적으로, 혹은 단체들과 함께 가난한 이들을 찾아 어려움을 돌보았으나 육체적 한계에 부딪쳐 어느 산골 마을로 휴양을 떠나게 된다. 이때 그는 목동들, 소작농, 영세 농민들을 만나게 되었고 이들의 가난함과 종교적 황폐함에 경악했다. 그가 후에 “제2의 회개”라고 밝힌 농촌 사람들과의 만남은 결과적으로 「구속주회」의 설립으로 이어졌다.

나폴리에 많은 사제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 하나 도시 밖 가난한 이들을 돌보지 않았음은 큰 충격이었다. 하느님의 말씀조차 들어 보지 못했던 사람들을 만나면서 알폰소는 가장 가난하고 버림받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수도회를 창설했다. 이로써 그는 “가난한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루카 4,18)고 하신 말씀을 따라 나폴리의 서민과 가난한 이들을 돌보는 일에

새롭게 자신을 던졌다. 이미 오래전 귀족 집안으로서 법률가로서의 특권을 버린 그였지만 새로운 부르심에 그는 그 외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1732년 알폰소는 가난한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당나귀를 타고 빈농가로 자리를 옮겼다. 알폰소의 전기를 처음 저술한 탄노니아는 이에 대해 “알폰소는 이것이 하느님의 뜻이란 것을 확신한 후 자신의 힘을 모아 용기를 내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폴리 전체를 봉헌하면서 앞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살다가 이 배움이 부족한 목동들과 농부들 사이에서 죽기로 결심했다.”고 적고 있다.

1734년 빌라 데글리쉬아비에 첫 번째 수도원을 세운 알폰소는 키오라니, 일리체토, 파가니 등에 차례로 분원을 설립했고, 1749년 교황 베네딕도 14세가 수도회 회칙을 인가했다. 창설 배경에서 보듯 구속주회의 영성은 “복음을 전하는 것”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다. 알폰소가 수도회에 정해 준 표어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기」였다. 여기에는 “충만한 구원을 계시하시는 하느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란 의미도 포함된다. “아무도 돌보지 않는 사람들에게 대한 특별하고 섬세한 사랑을 우리의 가슴속에 지니고 다닙시다.”라고 강조한 알폰소의 뜻에 따라 회원들은 마치 잃은 양을 찾기 위해 나서는 목자처럼 사람들 곁으로 다가가는 영적 지도자가 되기 위해 노력했고,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한복판을 찾아 수도원을 지었다. 특별히 가난한 이들, 배움이 부족한 이들을 위해 복음을 선포했던 회원들은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단순한 말과 형식으로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고, 알폰소는 “모든 이들이 이해하고 따를 수 있도록 강론할 것, 하느님 말씀의 빵을 배움이 부족한 사람들도 받아 먹고 배부를 수 있도록 잘게 나누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알폰소는 한편 당시 교회 안에 팽배하던 안세니즘과 윤리적 엄격주의에 거슬러 사람을 해

방시키는 복음을 제시한 인물로 꼽힌다. 안세니즘 영향으로 엄격한 생활이 강조되던 상황에서 많은 사제들이 사죄경 낭독을 거절하기 일쑤였지만 알폰소는 고해소에서 항상 부드러운 자세를 유지하며 신자들이 하느님의 자비를 느낄 수 있도록 배려했다. 그는 죽을 때까지 사죄경을 한 번도 거부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엄한 윤리를 강조한 안세니즘의 흐름 안에서도 고해소에서는 자비와 부드러움으로 사람들의 양심을 매우 편안하게 만들어 주었다.

“죄를 지은 자는 사람들이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 어떤 사람이 나쁜 악습에 깊이 빠져들어 있을수록 그만큼 더 부드럽고 다정스레 그에게 다가가야 한다. 고해신부는 죄가 남긴 수많은 상처들을 돌보아야 한다. 그는 풍부한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꿀처럼 부드러워야 한다.”

그는 안세니즘과 윤리적 엄격주의가 결코 복음에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면서 안세니즘 및 엄격주의의 주장들을 날카롭게 비판했고, 그 같은 활동은 후대에 큰 업적을 미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787년 살레르노에서 사망한 알폰소는 1839년 교황 그레고리오 16세에 의해 시성되었으며, 1871년 교황 비오 7세에 의해 교회 학자로 선포되었다. 또 1950년 교황 비오 12세로부터 고해 사제들과 윤리신학자들의 수호 성인으로 선언되었다.

**공지 사항**

**1 Rice Bowl**

Rice Bowl을 채워서 성당에 가져오시면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사용될 것입니다. 4/26(주일)까지 기부를 받을 예정이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 구역 음식 봉사 / 구역의 날**

- 일시 : 4/19(주일)
  - 음식 봉사 : Bellevue 구역
  - 메뉴 : 짜장밥
- 각 구역원들은 모두 함께 모여 친교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3 베드로회 모임**

- 일시 : 4/19 (주일) 8시 미사 이후
- 장소 : 110호실

**4 시노드 세 번째 모임**

- 일시 : 4/19(주일) 오후 1시
  - 장소 : 성전
  - 주제 : ① 우리는 하느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싶습니까?
  - ② 우리는 교회의 구성원으로 어떠한 분당 공동체를 만들고 싶습니까?
- 모든 시노드 참가자께서는 각 소그룹별로 세 번째 모임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구역장 회의**

- 일시 : 4/26(주일) 오전 11:30
  - 장소 : 110호 교리실
- 모든 구역장님들께서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성당 50주년 기념 기금 안내**

50주년 기념행사 및 기념 책자를 발간하기 위한 기금을 모금합니다. 교우 여러분의 기도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7 본당설립 50주년 묵주기도 50만단 봉헌**

- 본당 설립 50주년을 위한 묵주기도 50만단 봉헌에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기간 : 7/1/2025 - 8/31/2026
  - 대상 : 전신자

**8 성 김대건 한국학교 교사 모집**

- 성 김대건 한국학교에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사랑하며, 한글 및 한국 문화 교육에 힘써 주실 선생님을 모집합니다.
- 자격 요건 :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신분, 교육 관련 경력자 환영.
  - 수업 시작 : 금요일 오후 6:30 - 9:00  
토요일 오전 9:30 - 12:00
  - 문의 : sakks10@gmail.com

**9 2027 세계 청년 대회 확정 신청서**

세계 청년 대회는 전 세계 젊은이들이 교황과 함께하는 보편 교회의 큰 행사입니다.

기도, 미사, 교리 교육, 그리고 가톨릭 신앙을 익히는 시간으로, 교회의 보편성을 경험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젊은이들이 신앙을 더욱 깊이 하고 그리스도의 적극적인 증인이 되도록 격려합니다.

관심자 신청서를 작성하신 분들께서는 참석 여부를 결정하여 확정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확정 신청서 시 작 : 4/5/26 (주일)
- 확정 신청서 마감일 : 7/26/26 (주일)
- 문의 : standrewkimworldyouthday@gmail.com 혹은 위원장 이선재 마르티노 justin123yi@gmail.com



**입당송**

온 세상이아, 하느님께 환호하여라. 그 이름, 그 영광을 노래하여라. 영광과 찬양을 드러라. 알렐루야.

**제1독서**..... 사도 2,14.22L-33  
<예수님께서서는 죽음에 사로잡혀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화답송**

◎ 주님, 당신은 저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치시나이다.

**제2독서** ..... 1 베드 1,17-21  
<여러분은 티 없는 어린양 같으신 그리스도의 고귀한 피로 해방되었습니다.>

**복음 환호송**

- ◎ 알렐루야.
- 주 예수님, 저희에게 성경을 풀이해 주소서. 저희에게 말씀하실 때 저희 마음이 타오르게 하소서.
- ◎ 알렐루야.

**복음** ..... 루카 24,13-35  
<빵을 떼실 때에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영성체송**

빵을 나눌 때, 제자들은 주 예수님을 알아보았네. 알렐루야.

<b>본당 설립 50주년 기금 모금 (4/12/26 집계)</b>	
이명희, 양미애, 정순도, 박애령, 김인수, 이춘자, 김은수, 김성희, 차상철, 김희순	<b>모금총액 : \$2,200.00</b>

**교우 비즈니스 광고**

<b>Styles Law/골든 부동산(대표)</b>	<b>CPA, Cho &amp; Assoc. LLC</b>	<b>박영진 부동산</b>	<b>엠마 스킨 케어</b>
변호사 -Jeremiah Styles 케이스 매니저-서역원 마르띠노 206-335-3090	세금보고/상속.증여/회사설립 해외소득.자산보고/투자이민상담(예약) 206-353-6002 조도현 미카엘	고객 평가 1위 Windermere Real Estate 206-833-7979	스킨 마사지, 경락, 점, 검버섯, 타투 G마트 2층(린우드) 425-525-9955
<b>공간 디자인(Interspace Interior)</b>	<b>시애틀 교구 관할 천주교 묘지 (매장땅/납골당) 미리 구입 상담</b>	<b>Pearlshining Photo</b>	<b>퀀텟 용자/부동산</b>
블라인드 시공설치 전문 임정욱 마르세리노 206-669-4922	홀리루드 / 갯세마니 박요안나 206-434-5670	알루미늄 페널 사진, 여권사진, 장수사진 반태성(바오로) 206-883-3080 Lynnwood H-Mart 내	퀀텟 모게지 & 유니버스 부동산 대표 토니 장 (안젤로) 206-719-3502
<b>KCR MEDIA GROUP</b>	<b>24시간 한국방송 &amp;TV</b>	<b>IRA/401(K)</b>	<b>김현숙 부동산</b>
교차로 / 블루북 www.wowseattle.com 대표번호 425-712-1236	실시간 방송 11개 채널 KBS/MBC/SBS/케이블 방송 등 425-777-6667	U & T Financial 김용근(Glen) 바실리오 206-880-1190	Windermere Real Estate 주택/콘도전문 206-375-5959
<b>황바로 바오로 CPA</b>	<b>리나 웰니스 클리닉</b>	<b>안영미 글라라 종합보험</b>	<b>이상휘(스테파노) 부동산</b>
세금/회계/회사설립/감사대행 425-742-7675(린우드 대한부인회 옆) info@phcpallc.com	비만/호르몬 치료 비타민 주사 206-485-3112(최주연 리나)	메디케어/오바마케어 생명보험/ 자동차보험/사업체 보험 425-791-0638/253-778-3974	주택 전문 /John L.Scott 425-770-1212
<b>동서 한의원</b>	<b>New York Life</b>	<b>State Farm(첼시 황보 보험)</b>	<b>블루밍 치과</b>
425-773-7979	은퇴연금/상속계획/연금성보험/단기저축 IRA/401K/Rollover/학자금보험/롱텀케어 김수현 (바울리노) 253-802-2550	자동차, 주택, 생명, 사업보험 22618 Hwy 99 ste. #113 Edmonds 425-329-8396 (부한마켓 옆)	임플란트, 교정, 보철 4215 198thst SW #205 Lynnwood, WA 윤성욱 가브리엘 425-775-1800
<b>아틀라스 척추 의료원</b> 14608 Hwy 99 #309 Lynnwood	<b>강남 한식(구 린우드 한강) 장병돈(미카엘) 503-442-3690</b>	<b>메디아트 패밀리 클리닉</b>	<b>이재호 (베드로 치과)</b>
교통사고 상해, 직장 상해 김진영 요안나 425-742-0332	냉면 - 감자탕 - 순두부 - 도시락 캐터링 - 김치/ 반찬 / 점심배달 19505 44 th Ave. W. Lynnwood	일반 내과, 부인과 진료 425-233-8254 (Bellevue)	임플란트, 레이저치과, 아동치과 206-362-2500 16535 5th Ave. NE Shoreline
<b>정가네 반찬</b>	<b>황명심 데레사, CPA, CFP</b>	<b>굿닥터 카이로프랙틱</b>	<b>그린 리본 프로젝트</b>
반찬, 케더링 전문 206-906-9789 206-372-6481	세금보고, 회계업무 425-373-0380 / 425-802-7999 SabrinaHwang@CPA.com	김병성(프란치스코) 425-775-7550 19514 64th AVE W Suite B Lynnwood	그림을 통해 나를 찾는 과정 여성들을 위한 특별한 수업 213-926-7030(Issaquah)
<b>희망미디어(Hope Media)</b>	<b>New Haven Geriatric Psychiatry</b>	<b>핸디맨</b>	<b>Bridge Tax Services</b>
홈페이지제작/광고/행사/유튜브촬영&편집 집 253-256-1854 Kwom.guhun@gmail.com	노인 정신과 206-657-4829 www.newhaven.care	페인트, 벽지, Hardwood Flooring 206-498-8164 임화식 레오	개인 및 자영업자 세무 회계 전문 CPA 김효진(릿다) 425-243-7423 www.bridge-taxservices.com
<b>웅진 코웨이 USA</b>	<b>뉴 해남 식당</b>	<b>Banji (Korean Speed Dating)</b>	<b>시애틀 폴락 (덕화명란, 간장게장, 시래기)</b>
정수기, 청정기, 비데, 안마의자 렌탈 253-632-0498 토마스 조	11:00 AM~9:30 PM 매주 목요일 휴무 206-367-7843	425-999-1874 김현숙 헬레나 banjiseattle@gmail.com	425-534-9255 www.seattlepollock.com 4215 198th St. SW #204 Lynnwood

**미사 시간 및 성사 안내**

주일 미사	토요일-7:00(오후), 주일- 8:00(오전), 10:00(오전), 11:30(오전)-YG/주일학교, 5:30(오후)-청년미사		
평일 미사	화 / 목 - 오후 7:00, 수 / 금 -오전 10:00		
성사 안내	봉성체 : 목요일 (4/30/26)	유아세례 : 오후 3시 토요일 (6/20/26)	

## 교황청 내사원

#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선종 800주년을 기념하여 특별 희년을 선포하고 전대사를 수여하는 교령

“프란치스코를 우리 가운데에서 위대하게 만드시고 천사들 앞에서 영광스럽게 하신 하느님께 찬미와 영광을 드리기 위하여 우리 사부요 형제인 프란치스코에 대한 기억을 깊이 간직하십시오. 프란치스코가 우리에게 청한 대로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하느님께서 우리도 프란치스코와 함께 당신의 거룩한 은총을 나누어 받게 해주시도록 프란치스코에게 기도를 청하십시오.”

방금 막을 내린 2025년 정기 희년의 은총의 열매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풍성히 남아 있고,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희망 (로마 5,5 참조)의 순례자가 되라는 권고가 여전히 유효한 가운데 기쁨과 성화를 위한 새로운 계기가 이상적으로 더해졌으니, 바로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이 지상 삶에서 천상 본향으로 기쁘게 옮겨간 날(1226년 10월 3일)의 800주년 기념일이다.

최근 몇 해 동안,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과 그 말씀에 관한 중요한 희년들이 있었다. 그레초에서 최초로 아기 예수 탄생 장면을 재현한 일, 창조의 거룩한 아름다움을 노래한 ‘피조물의 찬가’를 지은 일, 선종 2년 전에 새로운 골고타라 할 수 있는 베르나산에서 거룩한 상흔을 받은 일의 800주년을 기념하는 희년들이었다. 2026년은 앞선 모든 희년 거행의 정점이자 완성이 될 것이다. 실제로 이 해는 성 프란치스코의 해, 우

리 모두가 이 세라핌 사부의 모범을 따라 우리 시대의 세상에서 성인이 되도록 부름받는 해가 될 것이다.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이름 가운데에 하늘 아래 다른 어떤 이름도 없다.’(사도 4,12 참조)라는 말씀이 경이로운 사실이라면, 12세기와 13세기 사이, 곧 이른바 성전(聖戰)들, 도덕적 해이, 잘못된 종교적 열정의 시대 한가운데에서 프란치스코라는 “태양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점도 마찬가지로 특별한 사실이다. 부유한 상인의 아들이었던 프란치스코 성인은 가난하고 겸손한 이, 이 세상의 참된 ‘제2의 그리스도’(alter Christus)가 되어 세상에 복음적 삶의 구체적인 모범과 그리스도교 완덕의 참표상이 되었다. 우리 시대는 프란치스코 성인이 살던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고, 바로 그러하기에 성인의 가르침은 오늘날에도 더욱 유효하고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그리스도교 애덕이 사라져가고 무지가 악습처럼 퍼져 가며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교 정신이 아니라 이기심의 발로에서 민족들 사이의 화합을 칭송하게 된다면, 가상 세계가 현실 세계를 앞서게 된다면, 사회의 불복과 폭력이 일상생활의 일부가 되고 평화는 날마다 더 불확실해지고 더 멀어지게 된다. 이번 성 프란치스코의 해는 우리 모두에게 저마다 지닌 고유한 잠재력에 따라 아시시의 ‘가난한 이’(Poverello)를 닮아 가고 되도록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

리 자신을 빛어 가라는 격려이며 바로 얼마 전 막을 내린 성년의 지향들을 헛되이 하지 말라는 촉구이다. 우리가 순례자임을 알려 준 그 희망이 이제 실질적 애덕의 열정과 열의가 되기를 바란다.

“저는 그대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그대의 종인 저를 사랑하는지, 그대가 이 사랑을 실천할지 이 점에서 알고 싶습니다. 곧,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그대의 눈을 들여다보고 청할 때에 그대의 자비로운 용서를 얻지 못한다면 채 돌아가는 형제가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잘 알려진 「어느 봉사자에게 보낸 서간」(Epistola ad Quendam Ministrum)에 담긴 이 특별한 말씀으로 프란치스코 성인은 어느 익명의 형제에게 위로와 조언을 건넬 뿐만 아니라, 그 무엇보다 용서와 대사의 개념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연결된 자비의 근본 개념을 설명하고 강조한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아시시의 용서’ 또는 ‘포르치운쿨라의 대사(大赦)’로 불리는 용서이다. 이는 호노리오 3세 교황께서 예외적인 특전으로 프란치스코에게 직접 허락하신 것으로서, 고해성사와 영성체를 하고 나서 800년 전에 ‘작은 몫의 땅’(일명 ‘포르치운쿨라’) 위에 세워진 아시시 인근의 옛 성당을 8월 2일에 방문하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대사였다.

성인은 그리스도의 대리자로부터 자신의 기도가 응답받은 것을 보고, 자신이 수여받은 그 은총을 선포하면서 포르치운쿨라 봉헌식에 참석한 군중에게 아낌 없는 열정과 기쁨을 전하였다. 우리 신앙과 기쁨의 봉사자이신 레오 14세 교황 성하께서도 같은 열정과 기쁨으로 정기 회년의 폐막에 맞추어 2026년 1월 10일부터 2027년 1월 10일까지 성 프란치스코의 특별한 해를 선포하시어, 이 한 해 동안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가 아시시의 성인을 본받아 삶의 거룩함의 모범이자 향구한 희망의 증인이 되도록 초대하신다.

소기의 목적을 더욱 완전하게 성취하고자, 교황청 내사원은 교황 성하의 뜻에 따라 발표된 이 교령으로, 성 프란치스코의 해를 맞이하여 일반 조건들(고해성사, 영성체, 교황 성하의 지향에 따른 기도)을 채우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에게 전대사를 수여하며, 이는 대리 기도의 형태로 연옥 영혼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1) 다음의 회원들에게:

- 1회, 2회, 3회 정규 수도회와 재속회의 프란치스코회 가족들.

- 프란치스코 성인의 규칙서를 준수하거나 그의 영성에서 영감을 받거나 어떤 형태로든 그의 은사를 계승하는 남녀 축성 생활회와 사도 생활단과 공립, 사립 신자 단체들.



2) 모든 신자에게 구별 없이:

죄를 멀리하겠다는 마음으로 성 프란치스코의 해에 참여하여, 전 세계 어디든 모든 프란치스코회 수도원 성당 또는 프란치스코 성인에게 봉헌되었거나 어떤 이유로든 그와 관련된 예배 장소를 순례 형태로 방문하고, 프란치스코 성인의 모범을 따라 그리스도인의 이웃을 향한 사랑과 민족 간 화합과 평화를 향한 진정한 염원이 마음속에 샘솟게 하기 위하여 그곳에서 경건하게 회년 예식을 따르거나 적어도 적절한 시간 동안 신실한 묵상을 하고 하느님께 기도를 드리며, 마지막에 주님의 기도와 신경을 바치고 복되신 동정 마리아,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 클라라 성녀 그리고 프란치스코회 가족의 모든 성인에게 간구하는 모든 신자.

노인들과 병자들과 그들을 돌보는 이들 그리고 중대한 이유로 집을 떠날 수 없는 모든 이가 온갖 죄를 멀리하고 최대한 이룬 시일 안에 세 가지 일반 조건을 충족하려는 지향으로, 성 프란치스

코의 해의 회년 예식들에 영적으로 일치하여, 자비하신 하느님께 자신들의 기도와, 삶의 슬픔과 고통을 봉헌하면 전대사를 받을 수 있다.

본 내사원은, 교회의 맺고 푸는 권한을 통하여 하느님의 은총을 더욱 수월하게 얻을 수 있도록, 수도 사제든 재속 사제든 적법한 특별 권한을 지닌 모든 사제가 기꺼이 너그럽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화해의 성사를 거행할 것을 간곡히 권고한다.

이 교령은 성 프란치스코의 해에 유효하며, 이에 반대되는 규정은 모두 무효이다.

로마 내사원에서  
2026년 1월 10일  
주님 세례 축일 전야

내사원장 안젤로 데 도나티스 추기경  
부원장 크리스토프 니키엘 주교